

## 매미

자정이 넘은 시각. 매미들이 한창 울어대고 있다. 팬티가 보일 듯 짧은 치마에, 부러질 것처럼 높은 하이힐을 신고 경사 높은 골목계단을 또각또각 올라가고 있는 **미영(40)**. 계단을 다 오르면 한적한 남산의 소월길이 보인다. 운행이 종료된 버스 정류장 벤치에 미영과 비슷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있다. 둘은 구면인 듯 서로 가볍게 인사한다. 길 건너편으로 스타렉스 한 대가 트랜스젠더 언니들을 내려주고 떠난다. 그녀들은 일정한 간격으로 각자의 나무를 찾아 꼭 붙어선다. 미영도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자신의 자리를 잡는다. 핸드백에서 거울 꺼내 보며 화장을 확인하는 미영. 그녀는 트랜스젠더다.

한가한 차도를 가끔씩 폭주하는 오토바이들이 굉음을 내며 지나가곤 한다. 반면 영금영금 기어가듯 지나가는 차들이 있는데, 그 차들은 나무 밑 트랜스젠더 앞에 잠시 멈춰서 태우기도 하고, 그냥 획 지나쳐가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에서 몇 바퀴 째 소월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은색 BMW가 보인다. BMW에 탄 남자는 유심히 그녀들을 관찰하다가... 미영에게 천천히 다가온다. 미영도 몇 걸음 앞으로 나와 BMW를 맞이한다. 창문을 반쯤 내리고 미영을 훑어보는 남자. “얼마예요?” 남자의 물음에 손가락 다섯 개를 피는 미영.

남자는 미영을 차에 태운다. 미영은 차를 근처의 인적 없고 어두운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한다. 어두운 맨 구석 자리로 가서 시동을 끄는 BMW. 남자에게 돈을 먼저 달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미영. 남자는 오만원 한 장을 건넨다.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남자의 허리띠를 푸는데... 미영을 멈춰 세우는 남자.

남자는 대화를 먼저 하고 싶다고 말한다. 미영은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해서 그럴 시간은 없다고 한다. 지갑에서 오만원 한 장을 더 건네는 남자. 미영은 수상쩍은 눈초리로 남자를 속 본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 남자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멀끔하다.

남자는 미영에게 언제부터 여자로 살기 시작했는지... 가슴은 어디서 했고, 아래 수술도 했는지... 등 어느 손님들처럼 뻔한 질문들을 한다. 트랜스젠더에 관한 남자들의 무지한 호기심이 지겨운 미영은 적당히 대꾸하는데... 대화가 이어질수록 남자의 질문들이 빠른 속도로 사적이고 날카로워진다. 심지어 자신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점점 남자의 질문들에 대답하기가 불편해지는 미영. 자세히 보니 어둠속에 가려진 그의 얼굴이 어딘가 낮익다. 그가 미영의 진짜 이름을 부른다. “창현아...”

**미영(창현)**은 17년 전, 트랜스젠더의 삶을 시작했다. 창현의 과거는 어느 것 하나 부족한 점이 없었다. 여자가 되겠다는 욕망만 참아내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면, 사회적으로 분명 양질의 인생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지금의 이 남자처럼...

남자는 몹시 궁금하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꼭 여자가 되어야만 했는지... 그토록 그 욕망을 참아내기가 힘이 들었는지...’ 남자는 지갑에 있는 돈을 모두 꺼내 미영에게 준다. 그

리고는 솔직하게 말해 달라고 부탁한다. ‘가난하고 비참한 현재의 삶이 원망스럽다고... 평범한 삶이 너무도 그립고... 어리석었던 선택을 정말 후회한다고...’ 미영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결국 남자가 미영에게 듣고 싶은 말은 이 한마디다.

“여자가 된 것을 후회한다.”

미영은 차 밖으로 뛰쳐나간다. 남자는 곧바로 달려 나와 미영을 붙잡는다. 하지만 미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몸싸움을 하다가 미영의 힘 한 쪽이 부러지고, 그 틈을 타 제압하는 남자. 미영을 다시 차 뒷좌석으로 밀어 넣는다. 남자는 미영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고 한다. 그는 여전히 미영에게서 ‘후회한다.’는 말이 듣고 싶다.

미영은 발버둥 치며 떨어진 핸드백에 손을 뻗어 뒤적거린다. 손에 잡힌 립스틱을 열고 남자의 입술에 톡 댄다. 립스틱이 입술에 닿는 순간, 남자의 몸에서는 온 힘이 빠져나가고 거칠게 흔들리던 차 안이 고요해진다. 그녀는 그대로 그의 입술에 립스틱을 짹 채워 발라준다.

미영은 말한다. ‘자신의 처참한 삶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위안 받고 싶었겠지만... 사실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는 것은 너라고... 여기까지 자신을 찾아온 것도, 후회라는 단어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도, 17년간 욕망을 참고 살아온 자신의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자신이 여자라는 욕망을 더는 참아낼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남자는 강하게 부정하며 미영의 목을 세게 조른다. 하지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미영은 오히려 남자를 더 걱정한다. 길고 긴 시간동안 너무도 숨 막히고 외로웠을 그의 삶을 위로한다. 분노에 가득 찬 그의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진다. 남자를 와락 끌어안는 미영.

“내가 이제 널 꺼내줄게.”

미영은 두 다리로 남자의 허리를 감싸서 고정한다. 그리고 그의 등짝을 탁 붙잡고는 온 힘을 다해 뜯어내려고 한다. 미영의 팔에 불긋불긋 힘줄이 올라온다. 남자의 등이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한다.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는 남자. 더 강하게 미영의 목을 조른다. 서로 힘 싸움을 벌이며 비명을 지르는 두 사람. 남자의 등에서 솟구치는 피가 미영의 위로 똑똑 떨어진다. 결국 남자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미영을 뿌리치며 차 밖으로 빠져나온다. 깊숙이 갈라진 남자의 등에서 알 수 없는 액체가 쏟아진다.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남자.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결국 주차장 한 가운데서 털썩 쓰러진다. 남자의 몸은 잠시 꿈틀대다가... 매미가 허물을 벗듯... 가녀린 여성의 나체가 등가죽을 벗기고 나온다. 몇 없는 주차장 가로등 불빛에 비춰지는 그녀의 실루엣... 그녀는 자신의 몸 곳곳을 쓰다듬으며 온 피부를 통해 전율을 느낀다. 벽차오르는 감정에 압도된 그녀는 하악하악 신음하듯 웃으며 몸을 배배 끈다.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남산에 울려 퍼진다.